

옹기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사상

박일영 (가톨릭대학교)

국문요약

김수환은 이 땅에서 천주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부터 천주교 신앙을 지켜온 유서 깊은 신앙가문의 후손이다. 김수환이 천주교 신부로 사제서품을 받은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우리 민족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던 바로 그 때이었다. 일본과 독일에서 유학한 그는 ‘그리스도교 사회론’을 전공하였다. 김수환은 1987년 이전에는 주로 인권회복과 정의구현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87년 이후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인간이 되기까지 자신을 최대한 낮춘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 자신부터 평화(shalom)를 실천하고, 이 세상에 실현시키려는 것이 김수환이 평생 간직하였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김수환은 평화 이론가라기보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옹기 있는 모범을 보여준 실천가였다. 김수환의 평화 개념은 ‘하느님의 [인간사랑이라는] 뜻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에 해당한다. 김수환은 스스로가 본보기를 보였듯이, 이러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김수환은 교회의 공식문헌을 인용하면서, ‘소극적 평화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정의의 실현’으로써 이룩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소개하며 그 실천 방안을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통하여 제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수환이 실천한 ‘평화감행’의 여정은 특정 종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수환이 참 평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강조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생명의 소중함, 정의의 실현, 세계를 향한 개방, 생활 속의 실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등의 주요 원리는 단지 어느 종교 단체의 교리나, 일부 정치 집단의 논리에 국한하지 않는다. 김수환의 평화 이해와 그 특징에 대한 정리와 실천적 사례에 대한 분석은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무르익고 있는 평화적 분위기의 진전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향한 발자취에도 효용성 높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주제어: 김수환, 그리스도교 사회론, 하느님의 인간사랑, 정의의 실현, 세계를 향한 개방, 평화감행.

I. 김수환의 생애와 시대상

천주교 박해 시절 용기장수로 생계를 이어갔던 조상을 둔 김수환은 1922년 5월 8일(음력) 대구 시내 남산동에서 출생했다. 그런 집안 내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년에 용기라는 아호를 선택하게 된다. 출생 직후 그의 가족은 이미 누이 부부가 자리를 잡고 용기 가마를 운영하던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로 이주하여 어린 시절을 보낸다. 군위초등학교 4학년을 마친 그는 1933년 4월에 두 살 위 형인 김동한과 함께 대구 소재 유스티노 신학교 예비과에 입학한다. 1936년 4월에는 서울 동성상업학교(현재, 동성중고등학교) 소신학교 과정인 을조에 진학하여 1941년 3월에 졸업한다. 그해 4월 일본 동경 상지대학교 예과에 입학한 후, 다음 해 9월 같은 대학 문학부 철학과로 진학한다. 1944년 1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 후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된다. 남태평양 지치시마에서의 군생활과 전후 일본군 전범 재판의 증인으로 고향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낸 후, 1947년에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1947년 9월부터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서울 성신대학(현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다.

1951년 9월 15일에 대구 계산동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경북 안동(현재, 안동시 목성동) 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한다. 1953년 4월에는

천주교 대구교구장 주교 비서로 전임되어 활동한 후, 1955년 6월부터 1956년 7월까지의 경북 김천 황금동 천주교회 주임신부와 성의중고등학교와 성의여자중고등학교의 교장을 겸임한다. 1956년부터 1963년까지 독일 뮌스터 대학교로 유학하여 ‘그리스도교 사회론’¹⁾을 전공하였다.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 한 후에는 1964년 6월부터 1966년 5월까지 주간 가톨릭시보 (현재, 가톨릭 신문) 사장을 역임한다. 1966년에 마산교구장 주교로 서임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68년에 대주교로 승품되면서 서울대교구장으로 전보되었고, 이듬해인 1969년에 한국 역사상 최초의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당시 130여 명의 전 세계 추기경들 중에서 최연소 추기경이라는 기록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독일 유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요셉 호프너(Josef Höffner) 쾰른(Köln) 대교구장과 한낄한시에 추기경이 되었다는 진기록도 특히 당시 독일 사회에서는 크게 주목 받기도 하였다. 1975년부터 1998년까지는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임한다. 1997년 11월에는 민족화해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1998년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교황청 아시아주교대의원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한다. 1998년 6월 29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및 평양교구장 서리직에서 퇴임한다. 퇴임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간다. 1999년 4월 29일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국민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2003년 1월에는 생명21운동 홍보대사 등의 소임을 다하다가 2009년 2월 16일 선종한다.

1981년도 어느 일간지에 게재된 옹기 김수환(1922-2009)의 자전적 글은 그의 인간적인 풍모를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조금 긴 글이지만 중간 중간 생략해가면서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1) 독일어로는 Christliche Sozial-Lehre, 영어로는 Christian Social Teaching, 최근 한국에서는 [가톨릭] 사회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스도교 내지 가톨릭의 신앙내용을 어떻게 시대상황에 맞게 실천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학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날따라 대구 계산동 대성당의 종소리는 유난히 성스럽게 울려 퍼졌다. 많은 신도들과 선배 신부들의 따스한 눈길을 받으며 나는 로만 칼러 위에 수단²⁾, 다시 그 위에 희고 긴 장백의(長白衣)³⁾ 차림으로, 왼손에 제의를 걸친 채 발소리를 죽여 사제서품식을 집전하는 최덕홍⁴⁾ 주교님 앞으로 걸어 나갔다. 십자가도 그날따라 유난히 뚜렷하게 시야에 들어왔고 최 주교님의 목소리도 그날따라 유난히 엄숙했다. 어머니, 그해 69세이셨던 어머니는 ‘자식이 신부가 되는 게 소원’이었던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맨 앞자리 마룻바닥에 꿰어앉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식순에 따라 나는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받친 자세로 마루에 엎드렸다. 성가대와 선배 신부들이 불러 주는 성인열품도문(聖人列品禱文)의 성스러운 메아리가 성당을 맴돌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 마음을 비워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로 하여금 신부가 되는 것을 망설이게 했던 그 많은 신념들, 내게 1년쯤 고민을 안겨 줬던 추억 속의 여인, ‘네가 어떻게 신부가 되겠느냐고 나 자신을 굶어 대던 자격지심 등… 이런 것들의 환영(幻影)을 지워냈다. [중략]

충남 연산(連山)이 고향이던 할아버지 보현(甫鉉)씨는 독실한 신자로 병인년 교난(1866~1868)때 잡혀 충남 덕산(德山) 근처에서 교수형을 당해 순교하셨고, 아버지 영석(永錫)씨는 그 유복자였다. 그렇게 태어난 아버지도 천주교를 뿌리치지 못한 채 당시 박해를 받던 많은 신도들이 그러했듯이 웅기장수로 변신해 전전하다가, 대구의 처녀 서중하(어머니)와 결혼한 뒤 웅기 터를 경북⁵⁾으로 옮겨 생계를 꾸렸으나 장사가 잘 안 돼 이곳저곳으로 전전은 했어도 한순간도 천주교를 떠난 적은 없었다고 한다.

5남 3녀의 막내로 내가 태어난 곳은 대구시 남산동. [중략] 내가 일곱 살

-
- 2) 신부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로만 칼라가 있고 앞에 단추가 30-40개 달린 발목까지 닿는 검은색의 긴 옷.
 - 3) 사제가 미사 집전할 때 개두포(사제가 미사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아마포로 된 장방형의 흰 천. 蓋頭布) 위에 입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흰색의 긴 옷.
 - 4) 崔德弘 세례자 요한(1902~1954). 제5대 천주교 대구교구장(1948.12~1954.12).
 - 5)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를 용대리. 김수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의 옛집 터와 인근 초등학교 부지 등에는 2018년 3월 27일에 청소년수련관과 기념관 등을 포함하는 ‘김수환 추기경 기념 사랑과 나눔 공원이 개장되었다. 『가톨릭신문』, 2018년 4월 8일 참조.

되던 해, 아버지가 별세하셨으나 가톨릭을 향한 어머니의 신앙심은 더욱 깊어 갔던 것 같다. 주일에는 물론 평시에도 가톨릭 교리를 가르쳐 주셨고, 내가 신앙심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이셨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이던가 4학년 때이던가, 어머니는 처음으로 손위 형님(동한)과 내게 ‘신부가 되라’는 말씀을 꺼냈다. [중략]

내가 사춘기를 넘긴 것은 서울 동성상업학교로 동성상업학교는 갑조(상업학교 코스)와 을조(신부 코스·전원 장학생)로 나누어 학생을 뽑았는데 형님과 나는 을조였다. 도서관에서 일본문학전집을 닦치는 대로 읽어 대면서 막연하나마 이성애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내가 느끼기로는 이 같은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스토리가 비슷한 몇 개의 틀로 요약되는 것들이었다. 요컨대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다가 삼각관계로 발전했다가 누군가 자살을 하고... 아무튼 쉽게 싫증을 느꼈다.

그래서 접하기 시작한 게 『가톨릭 성인전』이었다. 돈 보스코 성인의 이야기와 소화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 등이 이때 읽은 것들로, 특히 소화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는 내게 소설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무한한 뜨거움을 안겨 주었다. ‘하느님은 미미한 존재를 통해서도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 기쁨과 고통 등 모든 것이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옵니다.’라는 대목은 내가 지금도 좋아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목이 좋고 동성상업학교 을조가 신부 코스라고 해서 내가 사실 당시부터 신부가 되리라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 우선 여성에 대한 동경이 없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한 예비신부로서는 고사하고 한 인간으로서도 부족함을 통감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과연 나는 신부가 될 자질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항상 ‘아니다’였다.

고민 끝에 어느 날 프랑스인인 공벨 신부를 찾아가 심경을 털어놓으면서 ‘신부가 되기 싫다’는 내 의사를 밝혔다. 공벨 신부는 한참 동안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신부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기 싫다고 해서 안되는 게 아니다’고. 나는 두말 못하고 물러났으나 신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면적인 갈등은 그 뒤 일본 유학(상지 대학)시절에도 줄기차게 계속됐다. 더구나 당시는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때라 신부 쪽보다는 이 나라 독립을 위한 투쟁에의 길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잡아끌고 있던 때였다. [중략]

아무튼 신부수업을 했으면서도, 그리고 신부가 무한한 동경의 대상이었으

면서도 나는 ‘신부가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해방 후 귀국하여 만나 뵈 대구 남산동성당 장병화 신부님(1912~1990)⁶⁾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내게 결정적인 조언을 해 주신 분이다. ‘신부로서는 부적당하다’는 나의 고민을 듣고 난 장 신부님은 ‘바로 그 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신부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꼭 신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략]

다음으로 여성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나는 두 번 여성과 인연이 있을 뻔했다. 한 번은 일본 유학시절 친구가 자기 여동생과 결혼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한 일이 있고, 또 한 번은 해방 후 우연히 교회에서 만난 세 살 연하의 여인이었다. 첫 번째 여인은 별 진통 없이 사양했으나 두 번째의 여인은 내가 거의 1년 동안 고민을 했다.

니체를 좋아한다는 이 여인은 이북에서 월남한 피난민으로 정신적으로 내게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접근해 왔다. 신부가 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던 때라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도 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하는 기로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는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한 여성을 완전한 의미로 사랑해 줄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신부가 됐다.

올해(1981)로써 신부가 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 3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30년의 연륜만큼 거룩하게 됐는가? 신부가 되기 전에 그랬듯이 여기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다’이다. 거룩하게 되었기보다는 오히려 때 묻은 30년이 고,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다.⁷⁾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김수환은 이 땅에서 천주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부터 천주교 신앙을 지켜온 유서 깊은 신앙가문의 후손이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깨끗하게 신앙을 지키고 물려준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생전에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 특

6) 1912년 대구 출생, 1932~1938년 대구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수학, 1938년 사제서품, 1954~1956년 벨기에 루벵 대학교에서 사회학 전공, 1968년부터 제2대 천주교 마산교구장 주교 역임.

7) “지금도 주님께 무릎 꿇어 용서를 빈다,” 『중앙일보』, 1981년 9월 22일, 『김수환 추기경 전집 17-7』에서 재인용.

히 어머니의 감화가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만 11세의 어린 나이에 신학교 문을 처음 두드렸고, 18년에 걸친 장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 사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김수환이 대구에서 천주교 신부로 사제서품을 받은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우리 민족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던 1951년이였다. 김수환은 한국 가톨릭교회 230여 년의 역사상 최초의 추기경으로, 전 세계 가톨릭교회 내부의 입장으로서 교황 다음의 최고위직에 오른 첫 번째 한국인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교회와 사회에 가로놓였던 높은 벽을 허물고 한국사회 전체의 인권회복과 정의구현,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앞장서 온 대표적인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김수환은 1960년대 말 서울대교구장이 되고, 추기경으로 서임되면서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때 김수환의 제1성이 바로 “교회의 벽을 허물자!”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의 기치 아래 다른 모든 가치들은 희생되거나, 유보된 상황이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였던 농민, 공장 노동자들, 도시 빈민들이 인간적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다.

사회 문제에 한하여 말하자면, 1987년 이전에는 주로 인권회복과 정의구현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고,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87년 이후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하여 ‘한마음 한몸 운동’ 등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선종 당시 안구 기증으로 두 사람에게 시력을 찾게 해 준 일화도 유명하다.⁸⁾ 또한 남한 사람들이 동서로 갈라져

⁸⁾ “봉사의 삶을 일깨워주신 김수환 추기경.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주천기

다투는 모습에 대하여도 염려를 금치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의 화합을 위하여 힘쓰고, 여러 방면의 지도자들에게 고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김수환은 우리 헌법에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원칙과 진실된 사회를 갈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김수환의 기본 입장은 언제나 한결 같고 분명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승리자가 되거나 영광을 탐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된 하느님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한 자세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라는 자세이다.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통하여 보라는 말이다. 인간이 되기까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 자신부터 실천하고, 이 세상에 실현시키려는 것이 김수환이 평생 간직하였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제일 웃어른으로서, 한국 사회의 큰 스승으로서 모두를 아우르는 질그릇, 옹기 같은 인물이 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 쪽으로 쏠리고 편향되지 않고, ‘모든 이를 위하여 모든 것’(Omnibus omnia)이 되고자 한 것이 그의 일관된 자세이었다.

김수환은 독일 유학 시절에 ‘그리스도교 사회론’을 전공하였다. 그리스도교 사회론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느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당 간 다음에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아름답고 바른 세상을, 성경의 말씀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한 신념을 배경으로 김수환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 인물이라고 여겨진다.

김수환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물러나 은퇴한 후에는, 사제성소를

교수 인터뷰,” 박일영 편,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제3권 (부천: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5), pp. 91~207 참조.

최종적으로 다듬었던 모교이기도 한, 서울 혜화동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구내에 위치한 공간에서 되도록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였다. 그렇지만 소외받고 외로운 고아나, 노인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남모르게 찾아다니면서 신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후배 성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그 이름을 자신의 아호를 따라 ‘용기장학회’로 짓기도 하였다. 물론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정치 지도자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는 깊은 명상과 오랜 수련의 결과로 얻은 밝은 지혜를 바탕으로, 나라를 위한 귀중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⁹⁾

용기 김수환이 평생 강조했고, 우리에게 남긴 것은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라는 좌우명대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을 그대로 따라서 모두에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인간다운 삶, 노동자의 권익, 정의구현, 민족의 화해와 일치, 세계평화... 이 모든 것이 김수환에게는 결국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가없는 사랑의 실천’¹⁰⁾ 이 한 마디로 모인다고 볼 수 있겠다.

II. 김수환의 평화사상과 그 특징

현대는 다문화와 다종교의 시대이다. 소위 ‘종교백화점 혹은 종교의 슈퍼마켓’에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제각기 마음에 드는 품목(items)을 선

⁹⁾ “그리스도 사랑의 사회화.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동채 대표 인터뷰,” 박일영 편,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제4권 (부천: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6), pp. 413~436 참조.

¹⁰⁾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 참조.

택해서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이다. 한 편으로 자유의식이 그 어느 때에 견줄 수 없을 만큼 고취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는 대중 조작에 따른 우민화를 염려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종교를 빙자한 테러가 난무하는 세계적 모순이 증대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대인이다.¹¹⁾

우리가 처한 세계는 동서 냉전으로 대표되는 상극의 시대를 지나, 이제 다중심(multi-centrism), 다문화, 다종교를 내세우는 상호협력과 호혜적 대화를 갈망하는 상생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다. 인종적, 지역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종교인구의 비율 분포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발적인 종교인구의 증가 등은 현대 종교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하게 만든다.¹²⁾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교가 지니는 또는 지녀야만 하는 ‘적극적이고 참된 평화’¹³⁾의 실현이라는 역할을 탐구하고자 하는 요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자신에 대한 배타적 보호 방책이나 제한적 울타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세상과 인간을 더 잘 그리고 더 깊이 알아듣는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종교학과 신학의 새로운 조류, 즉 ‘응용종교학’ 내지는 ‘종교신학’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¹⁴⁾

11) 김경재, “위기극복의 과제와 종교의 역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명충돌 위기와 종교. 2001 하반기 이웃종교 이해강좌 자료집』 (서울: 종로성당, 2001년 12월 4일), pp. 7~11 참조.

12) William A. McGeveran,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New York: World Almanac Book, 2005; <<http://www.globalreligiousfutures.org>> 참조.

13) 현대 평화 이론에 관한 내용은 김명희, “종교, 폭력, 평화: 현대 평화연구에서 종교의 위치,” 『종교문화비평』 1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0), pp. 15~47 참조.

14) 유정원, “한스 쾨의 평화신학,” 이찬수·유정원, 『종교신학의 이해』 신학총서 32 (왜관: 분도출판사, 1996), pp. 195~204; Wilfred Cantwell Smith, *Towards a World 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The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하느님의 평화, 즉 샬롬(shalom)이라고 지칭 되는 완전한 형태의 적극적인 평화를 그 이상으로 이야기 해 오고 있다.¹⁵⁾ 이하에서는 현대 사회 안에서 평화실현의 비전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김수환의 평화 이해와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¹⁶⁾ 즉,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간 구체적 인물인 김수환의 삶과 행동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평화의 개념과 ‘평화 감행’(平和敢行. Frieden Wagen)¹⁷⁾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수환이 제시했던 평화의 의미와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평화감행)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단초를 그 윤곽이나마 제시하리라 기대하게 된다.

1. 김수환의 평화 개념

주지하다시피, 김수환은 종교나 사회사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을 담은 전문적 학술 저서를 남기지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준 언행을 통해 그의 사상과 실천덕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¹⁸⁾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김수환의 ‘사회영성’(social spirituality)

Westminster Press, 1981), pp. 21~44; Leonard Swidler, ed., *Toward a Universal Theology of Relig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7), pp. 1~50 참조.

15) Richard Friedli,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pp. 27~29: “샬롬” 개념 참조.

16) 오지섭, “평화,” 강영옥 외, 『김수환 추기경 시민 아카데미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서울: 감사랑, 2015), pp. 119~137 참조.

17) Cfr. Richard Friedli,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18) 김수환추기경전집편찬위원회 편, 『김수환추기경전집』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1) 참조. 『김수환추기경전집』은 총 1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집 출간을 기획한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 [소장 신치귀는 1965년부터 2000년까지의 일기, 메모, 강론, 강연, 기고, 인터뷰, 축사 등 각종 원고 총 3,481편 가운데 2,078편을 선정하여 출판하고, 2001년 6월 27일 김추기경의 팔순을 기념하여 봉정했다. 이하

이 지니는 특징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수환은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이론가라기보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는 모범을 보여준 실천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생전에 보여준 모든 관심과 행동은 현실 삶의 절박한 상황 안에서 벌어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찰을 토대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심고원려의 내용을 자신부터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김수환이 보여주었던 용기 있고 진솔한 모습에서 이러한 사회영성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확인할 수 있다.

‘평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김수환의 실천적 사회영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평화 이해는 막연한 이론 탐색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반(反)평화의 현실 안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진 실제 삶의 모색이요,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평화실현이란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기보다, 실천적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¹⁹⁾ 평화는 본질적으로 ‘인간성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구조적 폭력’이라는 사회적 불공정과 억압이 없는 상태까지를 포함한다. 비폭력적 분쟁 해결을 선호하고, 정치·경제적 정의와 사회·환경적 균형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참다운 평화는 가치를 앞세우며,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지닌다.²⁰⁾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원칙은 이데올로기, 군사, 경제 등의 문제를 떠나

『전집』으로 표기. 그 이후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비서실에서는 1965년부터 2008년까지 수집된 김수환 추기경의 모든 원고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김수환추기경말씀집』을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총 33권의 한정판으로 간행하여 관련 기관에 비치하였다. 이하 『말씀집』으로 표기.

19) 김명희, “종교, 폭력, 평화: 현대 평화연구에서 종교의 위치,” 참조.

20) 위의 글 참조.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화해하는 마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통일은 북한의 영토와 남한의 영토를 어떻게 합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의 문제는 갈라져 사는 동포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문제, 즉 평화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경계의 논리처럼 주는 것이 있어야 내놓을 수 있다는 식의 이윤 논리나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논쟁, 그리고 확전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군사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에 중심을 둔 평화의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²¹⁾

하느님이 가장 관심 있고 사랑하는 인간이 하느님 창조의 뜻대로 존엄성을 간직하며 참된 삶, 행복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곧 참된 평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수환의 평화 개념은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에 해당한다. 김수환은 이러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참된 평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진리에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으로써 이룩되는 평화입니다... 진리, 정의, 사랑이야말로 평화의 참 무기입니다...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미소 하나로써 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합시다.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사랑에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그 메마른 마음을 적서 줄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이 많습니다. 옷이 없어서라기보다 아무도 그들을 사랑과 이해로써 감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에 갇힌 사람처럼 고독하고, 중병을 앓는 사람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한 것이 될 것입니다(마태 25, 40). 우리 하나 하나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21)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1999.4.20), 『말씀집. 1999년』, p. 59.

에게 사랑을 베풀 때, 참 평화는 증진될 것입니다.²²⁾

김수환의 평화 이해를 앞서 살펴본 현대 평화 이론에 견주어보면 ‘적극적 평화’ 개념 내지는 완전한 평화에 해당한다.²³⁾ 김수환 스스로도 교회의 공식문헌을 인용하면서, 소극적 평화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정의의 실현으로써 이룩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소개하며 그 실천 방안을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통하여 제시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인간 사회에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더욱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정의란 존엄한 인격체로서 인간 서로가 올바른 관계에 서서 의롭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곧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폭력, 억압, 공포, 위협에 의해 강요된 질서, 강자가 약자를, 물질적인 부(富)를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질서는 거짓된 질서이며,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평정(平靜)’이라는 말은 흔히 압제를 의미합니다. 거짓된 질서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두 자를 보아도 벼(禾)가, (곧) 밥이 모든 입(口)에 골고루(平) 들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²⁴⁾

2. 김수환 평화사상의 특징

이런 맥락에서 김수환이 실천한 평화감행의 여정은 특정 종교라는 테

22) “평화의 참무기(1976.1.1),” 『말씀집. 1975~76년』, pp. 239~240.

23) 김명희, “종교, 폭력, 평화: 현대 평화연구에서 종교의 위치,” 참조.

24) “평화에의 갈망(1988.11.25),” 『말씀집. 1988년』, pp. 523~524.

두리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참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물리적 힘으로 얻고 지키려는 평화는 참된 평화일 수 없다고 한다. 김수환이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 보여준 평화사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의의 실현

1972년에 대통령을 위한 연례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물리적 강압에 의한 안녕과 질서’가 아닌 참 평화에 대한 김수환의 소신은 거침없이 표출되고 있다. 2014년 여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한 연설에서 “고통 앞에 중립은 없으며, 평화는 정의의 실현”²⁵⁾이라고 힘주어 말한 대목과 오버랩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평화는 오늘날 모든 이의 소망입니다. 하오나 세상은 아직도 힘의 평화, 즉, 무력과 경제력 등 힘의 균형과 질서 유지를 평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는 다르옵니다. 주는 외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써 세상에 평화를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그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불목의 죄악과 전쟁의 화를 우리 안에서 없애 주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자녀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서로 형제됨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평화를 원하면 먼저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²⁶⁾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 국회에서 행한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한 연설에 대하여도 준열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²⁵⁾ 2014년 8월 14일에 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청와대 연설 전문”은 방송, 신문 등 국내 각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²⁶⁾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1972.5.1),” 『말씀집. 1971-74년』, p. 180.

지난번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정치에서는 그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더 큰 재난으로 우리를 파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특히 그 힘이 핵무기를 비롯한 고도의 화학무기를 뜻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도 없고 사회도 조용하다고 해서 그것을 곧 평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독재정권 아래서는 국민은 무섭고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회질서가 잘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극단의 비유일지 모르나 그런 것은 무덤의 평화와 질적으로 다를 바 없습니다.²⁷⁾

평화는 인간존엄성과 인간권리의 존중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토대로 한다. 그렇다면 김수환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인간다움이 제대로 실현된 모습이다.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 없이 평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힘에 의한 안정은 평화가 아닙니다. 한 국가사회 안에서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위정자와 국민 간에 있고, 국민 상호간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서 뿌리째 뽑아 보십시오. 무엇이 남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야심, 탐욕 등 남는 것은 모두 죄악뿐입니다. 혼은 타락하고 마음은 메마르고 황폐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발붙일 곳 없는 황무지 사막입니다.²⁸⁾

2) 인간에 대한 사랑

마찬가지 맥락에서 김수환은 평화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인간 존중과 인간 사랑의 실천도 강조한다.

27)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1989.3.6),” 『말씀집. 1989년』, p. 68.

28) “국가의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1973.3.24),” 『말씀집. 1971~74년』, pp. 306~307.

참 평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와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인간존엄성과 인간권리를 존중하고, 또한 사회정의를 토대로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모두 우리 이웃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민족·국가 등의 차별을 떠나서 형제로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그 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인간의 참된 삶, 번영과 행복·구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당신을 비우시고 바치셨습니다. 하느님의 제일의 관심사는 인간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인간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과 같이 신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²⁹⁾

그렇다고 김수환이 제시하는 평화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내세적인 데 만족하고 머무르는 평화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현해야 하는 현실적 평화, 일상생활 속의 평화이다.

남한 내의 휴대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해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의사소통욕구가 그만큼 큰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남한과 북한사회의 의사소통은 초기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부작용도 심각할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의 욕구를 건강하게 유도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희망 해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사소통에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가 갖들여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준비하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철학과 생활을 내면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 동포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시키고 이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³⁰⁾

29) “사랑과 평화(1986.1.1),” 『말씀집. 1986년』, p. 2.

30)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1999.4.20),” 『말씀집. 1999년』, p. 61.

3) 세계를 향한 개방

김수환은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교황 요한-바울로 2세의 말을 빌어서 힘주어 강조하기도 한다.

교황 요한-바울로 2세께서는 오늘 제16차 평화의 날 메시지를 발표하시면서 오늘의 사회와 세계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이 평화를 위해서는 참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라 안의 여러 계층 사이에, 지도자와 국민, 노동자와 사용자 등 여러 계층 간에 진리와 정의에 입각하여 함께 공동선을 찾는 자세로 대화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쟁과 전쟁의 위험,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불안은 이런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는 평화의 필수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그 자체, 상대방을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³¹⁾

이런 맥락에서 김수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던 여러 정치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미 보아 온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함을 잘 압니다. 광주사태 해결, 5공 비리 청산, 삼청교육대 문제 등,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민족과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 서로 적대관계에 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문제는 지역감정입니다. 특히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은 골이 깊습니다. 다음은 노사 간 계층 간 도농(都農) 간 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격차입니다. 또한 세대 간의 격차,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 결핍도 심각합니다. 뿐더러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직 불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 경시의 관념과 폐습은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와 인신매매 등의 심각한 죄악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 나환자 결핵환자 고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땅의 평화는 첫째, 우리 모두의 인간다움을 위하여, 둘째, 국민화합

31) “대화는 평화의 필수조건(1983.1.1.),” 『말씀집. 1983년』, p. 16.

과 발전을 위하여, 셋째,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국방도, 종교도 이를 위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아 생각하고 활동해야 합니다.³²⁾

김수환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라도 하듯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현’을 힘주어 강조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신 것은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고 자신의 원수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불의에 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일체 쓰시지 않았습니니다. 자신이 불의와 폭력의 희생이 되면서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본을 받아 아씨의 프란치스코가 그러했고, 사를르 드 푸코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디도 그런 분이었고, 우리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분이었으며,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러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투투 대주교도 그런 비폭력 평화 투쟁가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떤 거짓된 술책이나 폭력을 수반한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³³⁾

김수환의 평화 사상과 그 특징은 그리스도교의 근본 가르침과 그에 대한 자신의 깊이 있는 성찰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수환은 자신이 제시하는 평화를 ‘하느님의 평화’ 혹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표현했으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의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제시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김수환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는 평화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사회 전반에 걸쳐 유효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³²⁾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1989.3.6),” 『말씀집, 1989년』, pp. 76~77.

³³⁾ 위의 글, pp. 77~78.

Ⅲ. 김수환의 평화사상이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

본고에서는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위한 종교의 과제를 한국의 가톨릭이라는 맥락에서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접근하였다. 즉, 우리 시대 영성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옹기 김수환의 평화 이해와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체적 인물인 김수환의 삶과 행동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평화의 개념과 ‘평화감행’(平和敢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수환이 제시한 평화의 개념과 평화 실현을 위한 발자취를 통하여 평화실현의 비전을 그 윤곽이나마 제시하였다.

김수환이 참 평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강조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사회정의’, ‘생명의 소중함’, ‘자기희생’, ‘나눔과 배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현’, ‘생활 속의 평화’ 등의 주요 원리는 단지 어느 종교 단체의 교리나, 일부 정치 집단의 소위 진영논리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집단의 노선과 울타리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현대 평화 이론과 김수환의 평화사상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 역시 이러한 포괄적인 평화의 실현이다. 김수환의 평화 이해와 그 실천과정을 천착함으로써 오늘날 세계가 처한 시급하고 심각한 과제로서 평화 실현을 위한 보편적 관심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를 드리우고 있는 문명 간 충돌이나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대학살, 인종 청소, 테러 등 비극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들도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종교의 이름이다. 뒤집어 말하면, 21세기에도 종교는 여전히 인류의 정신적 기초를 이룰 뿐 아니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삶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고 여겨진다. 달리 말

하면, 세계문화의 평화적 진전에 종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적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김수환의 평화이해와 특징에 대한 탐색은 테리와 분쟁 등에 불순한 의도로 왜곡되고 악용되는 종교가 아니라, 본연성(本然性)을 갖춘 종교 간의 만남과 그에 따르는 종교 간의 대화와 조화 그리고 협력이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함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수환의 평화 이해와 그 특징에 대한 정리와 실천적 사례에 대한 분석은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무르익고 있는 평화적 분위기의 진전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발자취에도 효용성 높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³⁴⁾

■ 접수: 2018년 4월 30일 / 게재확정: 2018년 5월 20일

34) 박일영,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종교의 역할. 통일을 향한 가톨릭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현대사상연구』, 제7집 (1997), pp. 171~181 참조.

【참고문헌】

-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판: 2002.
-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 편. 『김수환 추기경 말씀집』.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 갈통, 요한(Galtung, Johan).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 강영옥 외. 『사람답게 사는 삶.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청소년 인성교육』. 서울: 감사랑, 2014.
- 교황 요한 23세. 정규만 역.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3.
- 김명희. “종교, 폭력, 평화: 현대 평화연구에서 종교의 위치.” 『종교문화비평』, 18 (2010).
- 김수환추기경전집편찬위원회 편. 『김수환 추기경 전집』.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1.
- 디어, 존(Dear, John). 조세중 역. 『헨리 나웬. 평화에 이르는 길』.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2004.
- 박일영.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종교의 역할. 통일을 향한 가톨릭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현대사상연구』, 제7집 (1997).
- 박일영. “새 천년, 새 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가톨릭문화.” 『21세기 한국사회의 종교문화.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자료집』. 서울: 조선포털, 1999년 1월 21일.
- 박일영.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 박일영 편.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제3권. 부천: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5.
- 박일영 편.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제4권. 부천: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6.
- 박종대. “평화.” 『우리말철학사전』 제2권. 서울: 지식산업사, 2002.
- 버거, 피터(Berger, Peter L.).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서울: 종로서적, 1981.
- 이찬수 · 유정원. 『종교신학의 이해』 신학총서 32. 왜관: 분도출판사, 1996.
- 지라르, 르네(Girard René). 김진식 ·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1993.

- 킹, 한스(Küng, Hans).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새로운 비전』.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 1995.
- 프리들리, 리카르트(Friedli, Richard).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 프리들리, 리카르트(Friedli, Richard). 김영경 역.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 종교들의 역할.” 『새천년과 평화. 종교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조선포털, 2000년 6월 1일.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명충돌 위기와 종교. 2001 하반기 이웃종교 이해강좌 자료집』. 서울: 종로성당, 2001년 12월 4일.
- 헌팅턴, 새뮤얼(Huntington, Samuel).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이제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문명이다』. 서울: 김영사, 1997.
- Bouthoul, G. *La Paix. Que sais-je? 1600*. Paris, 1974.
- Erikson, E. H. *Gandhi's Wahrheit. Über die Ursprünge der militanten Gewaltlosigkeit*. Frankfurt am Main, 1971.
- Esser, J. *Zur Theorie und Praxis der Friedenspädagogik. Kritische Konzepte für Schule und Erwachsenenbildung*. Wuppertal, 1973.
- Friedli, Richard,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 Friedli, Richard. “Zivilisierung von Gewalt? Fanatische Strukturen und buddhistische Affektkontrolle.” Lähnemann, Johannes, Hg., *Interreligiöse Erziehung 2000*, Hamburg, 1998.
- Galtung, Johan. *Strukturelle Gewalt. Beiträge zu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rororo aktuell 1877, Reinbek bei Hamburg, 1975.
- McGeveran, William A.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New York: World Almanac Book, 2005.
- Rothenspieler, H. “Training gewaltfreier Aktion-Möglichkeiten emanzipatorischer Friedenspädagogik.” *Probleme des Friedens* 10 (1975).
- Russell, Elbert W. “Christentum und Militarismus.”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3, hg. v. W. Huber/ G. Liedke, Stuttgart/ München (1974).
- Smith, Wilfred Cantwell. *Towards a World 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 Swidler, Leonard ed. *Toward a Universal Theology of Relig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7.

Zacharias, G. *Der Kompromiss. Vermittlung zwischen gegensätzlichen Positionen als Ermöglichung des Friedens.* München, 1974.

Peace Thoughts by Stephen Cardinal Kim Sou-Hwan

Park, IL-Yo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Stephen Cardinal Kim is a descendant from a historically faithful family that had upheld Catholicism ever since Catholic was persecuted. He was ordained as a priest during the Korean War when the pain of Korean people was at its most. He studied abroad in Japan and Germany where he majored in 'Christian Social Teaching'. Cardinal Kim mainly focused on recovery of humanity and realization of justice until 1987. Since then, with the nation politically democratized to a certain extent, he put more interest in the reconciliation and consonance of the nation.

Following the example of God who lowered himself to become a human, Cardinal Kim started practicing peace (shalom) from himself and delivered it to the world. He was more of a practitioner than a theorist who showed a brave example from his real life. His concept of peace belongs to 'the state of entirely realizing the love for human being by God'. As he demonstrated through his life, Cardinal Kim emphasizes 'practice in everyday life' to bring peace. Citing official references from church, he introduces the concept of 'active peace' tha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realization of justice'. It is beyond 'passive peace', a state referring to a no-war situation, and Cardinal Kim suggests ways to practice active peace

through detailed social context.

In this context, the journey of ‘dare to peace’ that Cardinal Kim practiced has a meaning across universal humanity and society beyond the framework of a specific religion. The basic principles that Cardinal Kim emphasized as detailed contents of truthful peace including ‘dignity and rights of human, preciousness of life, realization of justice, open to the world, practice in daily life and peace through peaceful means’ are not limited to the doctrines of a religion or the logics of a political group. Understanding the peace concept of Cardinal Kim, orga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peace, and analyzing his practical examples are expected to be highly useful not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eaceful sentiment that has been ripening in Korea but as one step forward to the reconciliation and consonance of the nation.

Key words: Stephen Cardinal Kim, Christian Social Teaching, Love for Human Being by God, Realization of Justice, Open to the World, Dare to Peace.

박일영(Park, IL-Young)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문화여성대학원장, 김수환추기경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명예교수이다. 한국종교학회 부회장, 한국무속학회 회장, 답게-살겠습니다 범종단 국민운동 연구위원장을 맡았다. 스위스 연방 연구재단(Fonds National Suisse) 선발 연구원, 독일 학술 교류처(DAAD),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천주교신철학원, 교황청 라테란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가톨릭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다. 대표저서로는 『한국 무교의 이해』(분도출판사, 1999),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가톨릭출판사, 2008), 『고요한 아침의 나라』(역세)(분도출판사, 2012), 『김수환추기경연구』(공저. 전4권)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8) 외 60여 권이 있으며,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종교의 역할” 외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